

국내 최초 지역난방방식 도입 우리나라 지역난방 역사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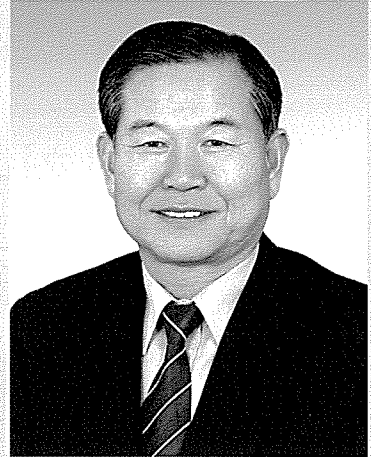
1985년 5월 목동·신정동지구 신시가지 개발 계획을 확정하면서 신시가지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지역난방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시작되었다.

1985년 11월 목동 1단지 아파트 열공급을 시작으로, 1992년에는 강서지구의 가양·등촌·방화지구까지 지역난방 공급구역이 확대되었으며, 1994년에는 노원지구에서도 열공급을 개시하여 지역난방이 서울의 동북부지역까지로 확장되기에 이르러 2005년 12월말 현재 20만호에 이르고 있어 20여년의 세월동안 공급 세대수가 106배 팽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SH공사]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등 재도약을 위한 신규사업의 추진



집단에너지사업단 단장 박수환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이 서울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서울시 환경을 개선시킴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연료비 부담에 따른 원가압력, 요금규제, 수요정체 등 부정적 경영환경요인으로 인해 2000년 이후로 지역난방사업은 정체기를 맞아 왔다.

최근 외적 환경은 집단에너지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지금의 고유가가 기초가 당분간 지속된다는 전망에 따라 에너지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제2차 국제석유파동을 겪고 난 후 1980년대 초기에 에너지에 대한 국가관리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난방이 국내에 도입된 전례로 비춰보아 지금이 집단에너지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전기가 되고 있다고 본다.

에너지원간의 가격 경쟁력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함은 물론 청정에너지의 수요증대 및 에너지비용 상승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SH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은 향후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여 도시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첫째,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강서 지역의 발산·화곡지구 및 노원지역의 기존아파트와 신규공급지역에 대한 적기 열공급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둘째,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중 경제성이 높은 사업지구에 대한 CES사업과 기존 열공급 지역에 대해 지역난방 배관망시설과 연계한 CES사업의 적극 추진. 셋째, 점차 중요성이 확대되는 지역에너지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시범 설치 및 운영 등 사업부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역난방 선구자로서의 자긍심으로 선두 일류기업으로 거듭나 경영개선을 위해 조직 재정비, 경비절감, 자원회수시설의 폐열 수열 증대 등을 추진하여 경영체질을 수익형 구조로 개선하고 사용자의 열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고객 우선주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조직의 성장, 발전 동력인 기업성이 가미 되도록 하여 우리나라 지역난방의 선구자로서 자긍심과 책무를 가지고 경제적이면서 쾌적한 난방문화를 창조하는 선두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